당신의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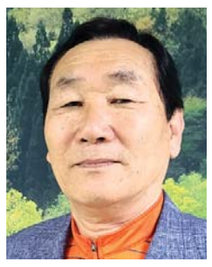
제47회 광일보훈대상 영광의 얼굴들

'제47회 광일보훈대상'(光日報勳大賞) 시상식이 6일 오전 11시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상자·가족·단체 임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유족과 전·공상 군경의 장한 삶을 되새기는 이번 행사에는 이덕모(전상군경4급·72)씨, 이숙희(공상군경 유족 처·54)씨, 임복례(전몰군경 유족 처·93)씨, 이준배(전몰군경 유족 자·67)씨, 허기남(무공수훈·89)씨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광일보훈대상은 호국 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훈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광주일보사가 제정, 올해로 47회째를 맞고있다.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정병호 기자 jusbh@

상이군경 이덕모씨 월남전 참전 부상…요양원 등 음악봉사



이덕모(72)씨는 1964년 10월 5일 해병대에 입대, 1966년 11월 청룡부대 1대대 3소대 병장으로 월남 파병을 갔다. 이듬해인 1967년 용안작전 전투중 머리뼈가 깨지고 오른쪽 다리와 복부에 총상을 입고, 고막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해 1968년 상이 4급 판정을 받아 명예전역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광산구·북구 주민센터 등에서 대민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남구 노인복지건강센터·한솔요양원 등에서 음악단장으로 월 2차례 음악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광주지부 희망봉사단원으로 시지부 및 지회 행사를 지원하고, 보훈요양원 등 재능기부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부터는 국제문화예술단체 회원으로 색소폰 재능기부 봉사를 했고, 직접 색소폰 악단 희망봉사단을 구성해 보훈가족과 시민을 위한 건강문화교실과 노래교실 활동을 펼쳐 2019년 남구청장과 국회의원 표창을 받기도 했다.

중상이자 부인 이숙희씨 부상 전역 남편 간호…틈틈히 봉사활동

이숙희(54)씨는 1985년 군대에서 훈련 중 사고로 다리와 복부에 심한 부상을 입고, 1986년 9월 전역해 상이 2급 판정을 받아 전역한 박양규씨의 아내다.

이씨는 부상 후유증으로 힘들어 하는 남편을 정성을 다해 간호하며, 고난의 시간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정신적인 버팀목이 됐다. 또 시부모님을 오랫동안 지극정성으로 부양하며 주변으로부터 효부라는 칭찬을 받았다.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가정생활이 안정돼야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을 함께하며 내조하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틈틈히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주변의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저소득층의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쌀, 김치 등의 생필품을 전달하며, 사랑과 희망을 전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전사자 부인 임복례씨 6·25때 남편 잃고 가장으로 시부모 봉양

광주시 운남동에서 태어난 임복례(93)씨는 18살이 되던 해에 고 이도재(당시 22세)씨를 만나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광주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남편은 인천상륙작전에 파견돼 1950년 7월 28일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때 이미 임씨는 어린 딸과 뱃속에 아이를 두고 있었다. 할 수 없이 집안의 가장이 돼 농사, 품팔이, 식당일 등을 전전하면서도 시부모 공양과 모든 집안일을 책임졌다.

자녀들을 훌륭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켰으며, 아들이 성실히 사회 생활을 하던 중 47세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사망해 또 시련을 겪기도 했다.

2000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광산구 신가동 노인당에서 식사준비와 고령 노인 수발 봉사를 했으며, 2000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광주 무등산과 보훈회관주변 정화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데도 힘쓰고 있다.

전몰군경 유족 이준배씨 유족회 지회장 맡아 불우회원 돕기

이준배(67)씨는 태어나기 전인 1952년 아버지인 이병철씨가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인제지구 전투에서 분투하다 1953년 2월 19일에 숨지고, 작은 아버지마저도 같은 해 전사했다. 모친은 이씨가 5살 때 주위의 권유로 재혼을 해, 막내 삼촌 손에서 어린시절을 힘들고 어렵게 보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이씨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중동 근로자로 지원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을 이뤄냈다.

이후 2008년부터 우산동사무소 통장을 맡아 주민봉사를 하기 시작, 전몰군경유족회 광산구지회 봉사요원으로 활동하며 매월 광주공원 현충탑, 사직공원 경찰충혼탑, 국립임실호국원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해왔다. 2014년 5월부터는 전몰군경유족회 광산구지회장을 맡아 불우 회원 돕기에 앞장서며, 2017년 6월 광주보훈병원 입구에 설치된 광주시 6·25전쟁 호국영웅 명비를 월 1회 이상 청소하고 있다.

특별부문 허기남씨 24년간 군 복무 보국훈장 삼일장 받아

허기남(89)씨는 1953년 9월 19일 자원입대해 육군소위로 임관, 24년간의 군 복무를 수행하고 전·후방 각지에서 근무하면서 전투력 향상과 월남전 참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1976년 10월 1일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았다.

전역후인 1980년부터 1982년까지 광천동 직장예비군 대대장으로 지역 향토방위에 힘썼으며, 1983년부터 1985년까지 광주시 개인택시조합 회장을 맡아 군 수송병과 전역 장병 일자리 알선에 힘썼다.

경로당에 쌀과 과자 등을 기증하며 꾸준한 사회공헌활동과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고흥군 소록도에 한센환자들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매해 2번씩 사직공원 및 호국무훈수훈전공비 주위 자연 정화활동을 벌여 깨끗한 지역 만들기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 9월 무공수훈자회 광주지부 장례의전 선양단원으로 지원해 장례의전 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전파했다.

광주 사립유치원 12곳 '감사 불복' 소송 패소

법원, 시 교육청 손 들어줘

광주시교육청이 12개 사립유치원이 제기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4일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2곳이 각각 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취소' 소송에서 11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 교육청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5곳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뤄진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들은 우유비, 졸업앨범비, 현장학습비 등을 현금 또는 업체 계좌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학급운영비 보조금 6억 906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학급과 원장 등을 허위로 신고하고 인건비 5660만원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원장 등 1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10억 8322만원을 회수 및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하지만 유치원들은 이러한 처분 요구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학급운영비 보조금 회수가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사립유치원에 이행 촉구하고, 이행사항 점검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회계의 투명성, 책무성 제고를 위해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북구, 2회 추경 역대 최대 규모 9548억원 편성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추경예산안을 내놨다.

4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9548억원을 편성해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번째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계지원과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첫 추경 대비 1939억원(25.5%) 증가했으며 생계지원, 지역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188억원과 광주시 가계긴급생계비 339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술·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자체시책에 6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광주북구의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학법인 교사노조, 임시이사 파견 요청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모 사학법인 이사장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4일 자료를 내고 "이 법인 관계자가 2016년에도 비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이 법인은 잊을만한 하면 언론에 등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사장이 학교법인 카드를 맘대로 쓰다가 교육청 감사에 적발될 때까지 교장·행정실장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학교 시스템이 붕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 교육청이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군 복무중 사망사고 진정 접수 광주 동구 시한 만료 앞두고 홍보

광주시 동구가 4개월 남은 군복무 중 사망사고 진정 접수 홍보에 적극 나선다.

동구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군(軍) 사망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 접수기한이 곧 만료됨에 따라 관내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 9월까지인 활동기간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아, 동구는 유가족들이 접수시일을 놓쳐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다중이용시설 등에 리플릿·포스터 등을 비치하고 홈페이지, 통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